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09-13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09-13
2020 년 09 월 13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088412015](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088412015)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 년 09 월 13 일

차례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정답인가]	3
2. [의대생들의패배로부터얻을수있는전훈에관하여]	3
3. [우리는산불을경고로받아들여야한다]	4
4. [이희극을어찌바라봐야하는가]	5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정답인가]

2020년 9월 10일, 고김용균노동자가사망한태안화력발전소에서또다시 특수고용노동자가숨지는사고가일어났다. 고김용균노동자가사망한지불과 2년이채지나기도전의참극이다.

물론이렇게반복되는책임의가장큰주체는안전을담보할수없는상태에서작업을할수밖에없는환경을만드는기업이다. 더군다나위험한일에는비정규직노동자를투입하여 '인건비를절약' 하려는기업의자세역시기업의책임이다.

하지만이러한기업의책임을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제정한다고하여원천적으로차단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다. 노동자를보호하기위해만들어진그간의법들조차제대로지켜지지않는상황에서새로운법을만든다고하여그것이제대로시행되리라는보장이그어디에도없기때문이다.

기업이숨방망이처벌보다더무서워하는것으로노동자는노동자스스로의안전을지켜야한다. 언제든또다시이러한비극이벌어질수있는작금의상황에서노동자를지킬수있는것은노동자의단결된힘뿐이다.

기계를멈추고, 물류를멈추고, 노동자가죽으면모든노동자는반드시그기업이가장무서워하는일, 그들에게이익을줄이는것따위가아닌극심한손해를끼친다는사실을일깨워줄때, 이모든비극은멈출수있을것이다.

<http://omn.kr/1ow0c>

2. [의대생들의패배로부터얻을수있는전훈에관하여]

결국의대생들이백기를들었다. 그냥패배도아니고완전히항복하고, 심지어의료계원로들이대국민사과까지해야하는완전패배, 무조건항복이다. 선배라는의사들이사실상완승을거두고, 의대정원확대와공공의료확충을저지한것에비하면웃음만나올뿐이다.

사실상예견된패배였다. 의협이정부와서명한이후, 이들은굉장히빠르게대중의관심바깥으로사라졌다. 폐북과포털사이트댓글에간헐적으로출몰하여자기들끼리'좋아요'누르고댓글다는것이이들이눈에띄는전부였다. 이러면지는것도당연하다.

이들의패배는이들의명분이악하거나, 대중을설득하지못해서가아니다. 의협의집단무단휴진역시명분도없고, 대중의분노를산것은마찬가지였다. 의대생들의집단행동이패배한것은, 그들이명분싸움, 정치적행동말고는할수있던것이없다는데에근거한다.

의협이아무리가증스러운요구를내걸고, 선전도못하고, 여론조작도못해냈다하더라도, 그들은의료산업현장에서그산업영역을장악하고있었기에자기요구를관철할수있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의료영역을멈춘다는광기에찬행동을통해서이긴하지만, 어쨌든말이다.

우리가의대생들의패배에서얻을수있는전훈도이와같다. 투쟁을명분으로, 정치력으로, 교섭술로하려고하지말자. 산업의영역을확보하고, 그것을멈추어내는노동대중의직접행동만이승리를가져올수있는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3. [우리는산불을경고로받아들여야한다]

미국서부지역에서이번 9 월부터시작된산불로인해광범위한피해가발생하고있다. 사상자는수십명에달하며피해규모는남한면적의 20% 에이르는등참담한실정이다. 10 여년전의그리스산불부터올해초까지이어졌던호주산불까지산불의규모와피해는시간이지날수록커져가고있다.

이러한원인은근본적으로기후변화에있다. 산불이주로발생하는시기는대기중의수분이부족해져날이건조한 8~9 월사이에발생하는데기온상승으로인해건조현상이심해지고있는것이다. 이처럼기후변화는우리생활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인류의공동과제임이갈수록확연해지고있다. 탄소배출감소와대체에너지의모색등이에대응하기위한노력이어느때보다중요해지고있지만세계각국의정부들은무관심하며최선의경우에조차신경쓰는척만할뿐이다.

문재인정부의소위그린뉴딜은탄소배출량을국제기준의 50% 에도못미치는목표로설정했으면서그에도못미치는턱없이부족한자원과지리로인해실적을내지못하고있고해외에서는트럼프정부가파리기후협약에서탈퇴하며기후변화가허구임을짓고있다. 성장률을최고의지수로여기며자본에복무하는이들의논리로이러한행동은당연한것이다.

결국사익과생산성만을추구하는자본주의체제와그하수인인정부에게현상황을개선하리란희망은품을수없다. 공해와오염으로얼룩진환경을바꿀유일한희망은의회와높은신분들이아닌민중과변혁에있다. 반자본주의투쟁과기후변화에대한투쟁은분리될수없으며전세계적위험에맞서세계와이땅에서는모든민중은자본과부패에대항하여인류의미래를지키고자연대해야만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4. [이희극을어찌바라봐야하는가]

근래추미애법무부장관아들의군복무과정중의휴가논란에대해논란이매우거세다. 그과정에서여당인더불어민주당과야당인국민의힘 (지극히국가주의적이다) 간의파워게임이벌어지고있다. 여기서민주당의한의원예의해추미애법무부장관아들의휴가의혹에대해서폭로한당직병의신상이유포되는등, 가히희극이라고불릴만한일들이정치권에서자행되고있다.

여기서우리는한가지짚고넘어가야할것이있다. 애당초국가권력에의해강제로징집된인민이없었다면이러한논란은없었을것이며, 애당초국가권력의존재와군이라는국가권력이독점중인폭력이없었다면이런논란은없었을것이다. 이논란에서한반도남쪽에거주하는인민의대변자를참칭하는양보수세력 (민주당, 국민의힘) 의책동은특히주목해야한다. 상대적으로온건한보수세력에서는군문제를정상적으로이행했으며이를비판하는것은‘국민’들이거부감을느낀다주장하고있으며, 상대적으로강경한보수세력에서는군문제를정상적으로이행하지않았으며이를저지른여당세력에게‘국민’들이분노를느낀다고주장하지않던가? 정작그들이말하는그‘국민’은파쇼적강제징집행태에고통받고있는데말이다.

그들은그들스스로인민의대변자라참칭하는것을그만두어야한다. 정작그들스스로의존재가인민을탄압하고강제징집하고있는데, 어떻게그들이인민을대변한답시고‘강제징집’을더정당하게했냐, 아니냐를논할수있는가? 강력한정부, 자본과정부에인민을강제로부역시키는군, 그리고이를어떻게든정당화하며문제의근본에서눈을멀게하는정치세력에맞서인민대중의단결과투쟁이필요하다. 대신해줄정당, 정부가아닌인민그스스로의투쟁만이억압으로부터의해방을일굴수있다.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131440309>